

아브라함 언약의 일곱 가지 약속과 멜기세덱과 레위의 두 제사장 계통

창12:12-3, 15:18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으로, 큰 민족과 땅, 그리고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창 12:2-3; 15:18). 이는 단순한 개인적 복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구속 계획의 출발점이다.

한편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서 등장하는 인물로, 살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창 14:18).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에게서 십일조를 받으며, 히브리서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예표로 보여 주는 인물로 해석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는 구속 계획의 핵심과 그 계획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아브라함 언약은 그 약속의 기초를 보여 주고, 멜기세덱은 그 약속이 어떤 방식으로 성취될지를 예표로 드러낸다. 그러므로 이 둘을 함께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브라함 언약 (창세기 12:1-4)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는 소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불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본문은 다음과 같다.

12:1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2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3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12장 1절에 “전에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 말씀이 하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미 주어진 것임을 의미한다. 영어 성경에서도 이 동사가 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있다. 즉 아브람은 지금 하란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전에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이미 주어졌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람이 하란에서 움직이기 전에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 (*)

이 아브라함 언약은 오늘날 이스라엘이 중동 땅에 거하고 있는 근거가 된다. 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을 정치적,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만 바라본다.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장면은 누가 보아도 참혹하고 안타깝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타임스케일에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큰 그림 안에서 보아야 비로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정확히 보인다.

이스라엘은 주전 586년 바빌론에 의해 나라가 무너진 이후, 주후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면서 본격적으로 온 세계에 흩어졌다. 그 이후 약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떠도는 민족이 되었다. 유럽에서는 수백 년에 걸쳐 박해를 받았고, 20세기에는 히틀러의 손에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홀로코스트를 겪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민족은 이미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민족은 사라지지 않았다. 1948년 5월 14일,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떠돌던 이 민족이 단 하루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선포하였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한번 사라진 민족이 언어와 문화와 정체성을 그대로 보존한 채 수천 년 만에 같은 땅으로 돌아와 나라를 세운 것은 역사에 전례가 없다. 이것은 민족의 생명력이나 정치적 역량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는 그 언약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것은 이 땅 때문이다. 결국 누가 승리하겠는가?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그 땅을 영원히 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이 약속은 한 번이 아니라 창세기 전체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확인해 주신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수천 년의 세월도, 수백만의 죽음도, 어떤 강대국의 힘도 취소할 수 없다.

이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처음 주어지고, 13장 14절에서 17절, 15장 1-7절, 17장 1-8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다.

그리고 이 언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쪼개어 마주 놓게 하신 후 아브람이 깊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만 홀로 그 쪼개진 것들 사이를 지나가셨다. (*) 당시 언약을 맺을 때는 쌍방이 함께 지나가는 것이 관례였지만, 아브람은 잠들어 있었고 하나님만 홀로 지나가셨다. 이것은 언약 성취의 책임이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께만 있음을 의미한다. 나중에 모세를 통해 주어진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의 순종 여부에 따라 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조건적 언약이었다. 그러나 아브라함 언약은 다르다. 아브라함의 신실함에도, 이스라엘의 순종에도 달려 있지 않다. 이스라엘이 수천 년간 불순종하고 온 세계에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948년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이 무조건적 언약에 있다. 하나님께서 홀로 맹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아브라함의 언약에는 크게 일곱 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

첫째, 땅을 주신다는 약속이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고 하였고, 13장 14-15절에서는 롯과 아브람이 갈라선 직후 하나님께서 “이제 네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고 말씀하셨다.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씨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와 네 씨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겠다고 하셨다. 이어서 13장 16절에는 씨를 땅의 티끌같이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였고, 17절에서는 “일어나 그 땅을 그것의 세로 방향과 가로 방향으로 지나가며 걸으라. 내가 그 땅을 네게 주리라”고 하셨다. 두 발로 밟으며 걸어보라고 하신 것이다.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으로 느끼며 이 땅이 네 것임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도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네가 그것을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주니라”고 하였고, 18절에는 그 경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땅을 네 씨에게 주겠다고 하셨다. 17장 8절에서도 “내가 너와 네 뒤를 이을 네 씨에게 네가 나그네로 있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영존하는 소유로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셨다. 땅에 대한 약속이 이렇듯 여러 차례 반복되고 강조된다는 것 자체가 이 약속이 얼마나 확고한 것인지를 보여 준다. (*), (*)

예레미야 31장 35-3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토록 보존해 주신다는 약속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35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는 낮에 해를 빛으로 주고 밤에 빛을 내도록 달과 별들의 규례들을 주며 바다의 파도가 울부짖을 때에 바다를 나누나니 군대들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36 만일 그 규례들이 내 앞에서 떠나 없어진다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씨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민족이 되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37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사람이 위로 하늘을 짚 수 있고 아래로 땅의 기초들을 찾아낼 수 있다면 나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씨가 행한 모든 것으로 인해 그들을 버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것은 해와 달과 별의 운행 법칙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는 일도 결코 없다는 말씀이다. 사람이 하늘을 재거나 땅의 기초를 찾아낼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깨지지 않는다. 예레미야 30-3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과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100퍼센트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둘째, 민족을 만들어 내신다는 약속이다.

12장 2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셨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일부에서는 이 약속을 영적으로 해석하여 이 큰 민족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지만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되었다는 것은 로마 카톨릭 신학에서 나온 사상이다. 여기서 말하는 큰 민족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씨에 대한 이야기이며,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

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고 그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다. 사례는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였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으로부터 큰 민족이 나온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이야기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 15장 5절에서도 하나님은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네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 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씨가 그와 같으리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약속이다. 그 밤 아브람은 장막 밖에 서서 하늘을 가득 채운 별들을 바라보았을 것이다. 씨 하나 없는 늙은 몸으로 저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그러나 그는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 주셨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씨가 나중에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민족들의 우두머리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지금 세상에서 이스라엘은 작고 고립된 나라처럼 보인다. 온 세계가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장에서 이 민족이 어떤 자리에 서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하나님은 “내 언약이 네게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지니라.”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많은 민족들’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다양한 육적 후손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이스마엘을 통해 여러 아랍 민족들이 나왔고(창 25:12-18), 또한 그두라를 통해서도 여러 족속이 형성되었다(창 25:1-4).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문자 그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한 가지 중요한 구분을 분명히 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계보는 모든 육적 후손을 통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 이어진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서 많은 민족이 나왔다는 사실과, 그 가운데서 언약의 계보가 따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 오늘날 중동 지역에 존재하는 여러 민족들 역시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얼마나 넓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은 창세기 13장 14-18절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롯과 갈라선 직후의 장면이다. 롯은 눈을 들어 요르단 온 지역을 바라보고 물이 넉넉한 좋은 땅을 택하여 떠났다. 아브라함은 남은 땅에 홀로 서 있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손해를 본 것이다. 그러나 롯이 떠난 바로 그 직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땅과 씨와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손해를 본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는 자리가 되었다. 사람이 양보하고 내려놓은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 믿는 자의 삶에서 이 원리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다.

넷째, 그의 이름을 크게 하신다는 약속이다.

아브람의 이름이 얼마나 크게 되었는가?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를 막론하고 모두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부른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알고 있으며, 그의 존재를 인정한다. 갈대아 우르의 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그는 이름 없는 나그네에 불과했다. 그러나 오늘날 그의 이름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이름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처럼 이루어진다. 사람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시작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크게 하겠다고 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이유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 역시 처음에는 우상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의 한 사람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다섯째,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된다는 약속이다.

말 그대로 아브라함은 복이 되지 않았는가?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이 나왔고, 이삭을 통해 야곱이 나왔고,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나왔으며, 그 씨를 통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약속은 단순히 그가 복을 많이 누린다는 뜻이 아니라 그 자신이 온 인류를 향한 복의 통로가 된다는 의미였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아브라함은 자신이 복의 통로가 되리라는 것을 살아 있는 동안 온전히 알지 못하였다. 그는 약속의 땅을 밟아래 두고도 막벨라 굴 하나만을 소유한 채 나그네로 살다 죽었다. 그러나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 후, 그의 씨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수십억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아브라함은 그 구원의 계보의 출발점에서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복이 되게 하실 때, 그 복은 그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그 사람을 통해 흘러나와 후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치게 된다. 하나님의 복은 웅덩이가 아니라 강이다. 그 복은 고이지 않고 흐른다. 아브라함의 일생이 그것을 보여 준다.

여섯째, 아브라함을 통한 축복과 저주의 약속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는 약속이다. 여기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축복하는 자들’은 복수로 쓰여 있고, ‘저주하는 자’는 단수로 쓰여 있다. 아브라함을 축복할 사람이 저주할 사람보다 많다는 것을 성경이 이미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원리를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향해 복과 저주의 기준을 세우셨고, 그 원리는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대하는 태도는 단순한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된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분쟁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심지어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인간적인 시각이나 현재의 상황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라는 더 큰 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도록 이끈다. 따라서 우리는 한 시대의 정치적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판단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약속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하나님 편에서 역사를 바라볼 때 비로소 균형 잡힌 시각이 형성된다.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호의적인 태도를 취한 민족들이 일정한 번영을 누린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근대 역사에서 영국을 들 수 있다. 15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약 500년에 걸쳐 영국은 유대인에 대해 비교적 보호적인 태도를 취하였고,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여 전 세계에 보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로마 카톨릭 교회 중심의 체제에서 벗어나려는 흐름을 보였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영국은 오랜 기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불릴 만큼 강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영국의 정책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중동 문제와 관련하여 유대인에 대한 입장에서 점점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고, 그 결과 국제적 영향력 역시 점차 약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후 세계의 중심축은 미국으로 이동하였다. 미국은 오랜 기간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역할을 해 왔지만 최근에는 그 입장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외교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성경의 예언을 보면 마지막 때로 갈수록 이스라엘을 둘러싼 국제적 환경은 점점 그 나라를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이스라엘을 지지하던 나라들이 점차 그 역할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이스라엘과 7년 언약을 맺게 된다. 그러나 그 언약은 중간에 깨지게 되고, 결국 적그리스도가 성전 안에서 자신을 하나님이라 선포하는 사건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성경의 예언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매우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들과 연결되어 전개된다. 따라서 이러한 말씀들을 단순히 영적인 의미로만 해석하면 본문이 말하는 실제 흐름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성경은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일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일곱째,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는다는 약속이다.

여기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혈통적 의미를 넘어, 믿음을 통해 복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며 “성경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네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설명한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처음부터 한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구속 계획의 시작이었음을 보여 준다.

다만 성경의 표현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 민족’, ‘한 씨’, ‘그 땅’과 같이 구체적으로 언급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이 차지할 땅을 가리킨다. 반면 ‘땅의 모든 가족들’과 같이 보편적인 표현이 사용될 때는, 믿음을 통해 복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처럼 아브라함 언약은 특정 민족을 향한 약속과 동시에, 믿음을 통해 온 인류에게 확장되는 구속의 약속을 함께 담고 있다.

멜기세덱 (창세기 14:17-20; 히브리서 5-7장)

창세기 14장 17-20절에는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온다.

14:17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또 그와 함께한 왕들을 살육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아브람을 맞이하였고 18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 그가 아브람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자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20 네 원수들을 네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람이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주니라.

만약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에만 등장하고 다른 곳에서 언급되지 않는다면 굳이 깊이 다룰 필요가 없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시편 110편과 히브리서 5장, 6장 20절,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 주는 인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여기서 먼저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빵과 포도즙은 그 시대 사람들의 주식이었다. 멜기세덱은 전쟁을 치르고 지쳐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기본적인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 준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빵과 포도즙으로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셨을 때, 그 빵은 누룩 없는 빵이었고 포도즙은 발효되지 않은 것이었다. 누룩은 성경에서 죄와 부패를 상징한다. 포도즙이 발효되면 누룩이 작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누룩 없는 빵과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만이 흠 없고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온전히 상징할 수 있다. 오늘날 요르단강 주변 지역에서도 ‘0퍼센트 와인’, 즉 포도즙을 판매하는 것은 이 지역의 오랜 전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 수천 년 전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들고 아브라함을 맞이하던 그 장면이, 훗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주의 만찬으로 이어지고,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에서 빵과 포도즙을 받는 것으로 이어진다. 창세기 14장의 그 짧은 장면 안에 이미 구속의 핵심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시편 110편 1절**은 이렇게 말한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인이신 아도나이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어서 4절에는 “주께서 맹세하셨고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서 한 번 등장한 후, 성경의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시편 110편에서 다시 언급된다. 그리고 이 시편에서 ‘너’라는 그 인물과 연결되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선언이 주어진다. 이는 단순한 과거 인물에 대한 회상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의 제사장 직분을 예표로 보여 주는 말씀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22장 43-44절에서 시편 110편이 바로 자신을 가리킨 것임을 직접 밝히셨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르거든 어찌 그가 다윗의 자손이냐?”(마 22:45)라고 반문하셨다. 다윗이 메시아를 ‘내 주’라고 불렀다는 사실은, 그 메시아가 단순한 후손이 아니라 다윗 위에 계신 주인,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보여 준다.

그렇다면 제사장 계통이 두 종류가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던

제사장 계통은 레위 계통이었다.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오직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제사장 체계는 사실상 레위 계통으로만 이해되고 있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사람들, 곧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사실을 상기시킨다. “너희가 시편 110편을 읽어 보지 않았느냐. 거기에는 또 다른 제사장 계통이 나오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계통이다.” 그들이 이미 알고 있던 성경 안에, 레위 계통과는 다른 제사장 질서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히브리서 5장 1-4절은 대제사장의 자격에 대해 설명한다.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취해져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위해 임명을 받으며, 이 직분은 누구든지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맡을 수 있다. 이어 5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임을 밝힌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시편 2편 7절 말씀이 인용되며, 그의 신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6절에서는 시편 110편의 말씀이 다시 인용된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레위 계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에 속해 있음을 분명히 드러낸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와 선언으로 세워지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9-10절도 “[그분께서]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불리셨느니라.”라고 기록하여 이 사실을 확증한다.

사도 바울은 이 중요한 내용을 더 깊이 설명하고자 했지만, 독자들의 영적 상태 때문에 잠시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들이 듣기에 둔하다고 지적한다. 창세기 14장에서 단 한 번 등장하는 멜기세덱에 대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들의 관심은 주로 이집트 탈출 이후의 율법과 레위 제사장 체계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멜기세덱의 계통이라는 개념은 그들에게 매우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명을 잠시 멈추고 다른 권면으로 넘어갔다가, 히브리서 6장 20절에서 다시 이 주제로 돌아온다. 그는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라고 말한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주제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는, 결국 7장 전체를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에 할애하여 그 의미를 본격적으로 풀어 나간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된다. 살렘은 지금의 예루살렘과 연결되는 지명으로 이해되며, ‘평화’를 의미한다. 예루살렘의 옛 이름 여부스와 살렘이 결합되어 현재의 이름이 형성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의의 왕’을 뜻하고, 살렘의 왕이라는 표현은 ‘평화의 왕’을 의미한다.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이름이 이미 예표로 보여 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멜기세덱에 대해 매우 독특한 설명을 덧붙인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혈통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유대 사회에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혈통을 증명해야 했다. 족보를 통해 레위 지파, 그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임을 입증해야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러한 족보가 전혀 제시되지 않는다. 그는 어느 혈통에도 속하지 않은 채 갑자기 등장하고 또 갑자기 사라진다. 이는 그가 땅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라 혈통을 초월하는 존재임을 보여 준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이라고 할 때, 그것은 혈통에 근거한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하고 초월적인 제사장이심을 의미한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였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히브리서 7장 7절은 “낮은 자가 더 나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에는 전혀 모순이 없느니라.”라고 기록한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였다는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존재임을 성경이 직접 확인해 주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창시자인데, 그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높다는 것이다.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증거이다

또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드렸다는 사실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당시 관습에서 어떤 존재에게 십분의 일을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헌물을 바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받는 대상의 우월성과 권위를 인정하는 행위였다(히 7:7).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제사장만이 십분의 일을 받는 대상은 아니었고 왕이나 통치자도 그렇게 받는 일이 있었다(삼상 8:15). 그러나 창세기 14장은 멜기세덱을 단순한 왕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창 14:18)으로 먼저 소개하고 있으며, 이어서 “아브람이 그에게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주었다.”(창 14:20)하고 기록한다. 따라서 이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하나님을 대표하는 제사장적 권위를 가진 인물로 인정하였음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핵심은 십일조 제도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제사장적 권위와 위치를 드러내는 데 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바탕으로 보다 확장된 신학적 논리를 제시한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십분의 일을 드릴 때,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의 허리 속에 있었던 레위도 함께 십분의 일을 드린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이 논리를 따르면 멜기세덱은 레위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된다. 이를 통해 사도 바울은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 체계가 레위 계통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사실을 논증하고 있다.

그리스도와 멜기세덱은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지닌다. 첫째,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셨으며 레위 지파와는 무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이기 때문이다. 둘째,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이라는 점이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왕의 직분을 가지지 않지만,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만왕의 왕이시며 동시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셋째,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점이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그분이 시간과 존재를 초월하시는 분임을 나타낸다. 멜기세덱에게서 보이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모습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을 등장시키신 것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다. 아브라함의 시대에서 수천 년이 지난 후, 히브리서를 통해 이 비밀이 완전히 밝혀지게 된다. 성경은 이처럼 시간의 간격을 넘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창세기의 한 장면이 시편에서 예언으로 나타나고, 그 예언이 히브리서에서 완전하게 해석된다. 이는 성경 전체의 저자가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흐름을 이해할 때 히브리서가 전하는 깊은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